

##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설 문 원\*\*

1. 머리말
2. 검색도구의 진화와 한계
  - 1) 검색도구의 개념과 역할
  - 2) 수직형 검색도구의 발전 과정
  - 3) 수직형 검색도구의 한계
3. 검색도구의 새로운 전개
  - 1) 복합화
  - 2) 통합화
  - 3) 개방화
4. 쟁점과 과제
  - 1) 탈맥락화
  - 2) 편견과 객관성 유지
  - 3) 이용자 참여방식과 질적 통제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09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주요 논저 : 「기록관리 표준화 전략의 재구축 방안」 『한국비블리아』 20(3), 2009;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5(3), 2008; 「기록의 품질 기준 분석: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1, 2005.

## [국문초록]

검색도구는 기록을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이다. 검색도구는 크게 수직형 검색도구와 수평형 검색도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직형 검색도구는 우리가 보통 ‘보존기록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라 부르는, 출처 기반의 계층형 검색도구를 말하며, 수평형 검색도구는 목록이나 색인 등과 같은 주제 기반의 검색도구로서, 주로 수직형 검색도구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색도구들은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으며, 가령 수직형 검색도구의 경우, ISAD(G), ISAAR(CPF), ISDF와 같은 국제표준기술규칙의 개발에 발맞추어, 출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견지하되 다중 엔티티 구조로 변화해가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 기록 관리 원칙을 적용한 수직형 검색도구는 어렵고 복잡하며, 구체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기록에 대한 다양한 접근경로를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른바 새로운 유형의 주제 기반 검색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존기록을 위한 수직형 검색도구의 변화와 그 한계를 조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검색도구 및 관련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복합화, 통합화, 개방화라는 3가지 경향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즉, 주제 해설과 검색도구를 연계시킨 복합적 형태의 검색도구, 여러 기관이 소장한 기록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검색도구, 이용자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적 형태의 검색도구는 향후 검색도구의 개발 전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검색도구의 출현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로는 탈 맥락화, 편견과 객관성 유지, 이용자 참여방

식과 질적 통제 등으로 보았다. 앞으로 새로운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오히려 수직형 검색도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앞으로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들이 검색도구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검색도구, 기록 기술, 수직형 검색도구, 출처 기반 검색도구, 주제 기반 검색도구, 기록정보 콘텐츠, 통합 검색, 웹 2.0

## 1. 머리말

국가기록원이 “고객 중심의 다원적 검색체계 구축”이라는 취지로 기록정보 콘텐츠 사업을 착수하고 2007년 「나라기록 포털」을 통해 기록을 다양한 주제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주제 서비스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기는 목소리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쏟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적극적 시도라는 찬사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검색도구, 즉, 계층적 기술(description)도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제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일의 선후관계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었다.

검색도구(finding aid)를 생산하는 것은 보존기록관(archives)의 핵심 기능이다<sup>1)</sup> 수백만 장서 중에서 원하는 책을 찾고자할 때 목

---

1) 윌리엄스, 캐롤라인, 『기록관리학의 이해 (Managing Archives: Foundations, Principles

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듯이 기록물을 찾는 데에도 도구가 필요하다. 도서의 경우 이용자가 서가 훑어보기를 통해 책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기록과 같이 완전 폐가식으로 운영되는 이용체계에서 검색도구 없이는 원하는 기록의 존재조차 알아내기 어렵다. 또한 기록은 낱장 문서에서 기록철, 상자 등에 이르는 복잡하고도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록이 생산된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구의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와 맥락에 대한 안내까지 도와주는 지적 통제 도구를 개발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키비스트들이 이렇게 공들여 만든 검색도구에 과연 이용자가 만족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기록학자들의 지적이다.<sup>2)</sup> 메리 조 푸(Mary Jo Pugh)는 “대부분의 정보제공 아키비스트(reference archivists)는 많은 이용자들이 현재의 검색도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며 새로운 방식의 검색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3)</sup>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아키비스트의 중재 없이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검색도구 활용 능력이 곧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좌우”한다.<sup>4)</sup> 따라서 이용자가 쉽고

---

*and Practice, 2006*』 남태우, 김유승 공역. 대구: 태일사, 2008. p. 83.

2) Cox, Richard J. “Revisiting the Archival Finding Aid.”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Vol. 5, No. 4, 2007. 5-32; Yakel, Elizabeth and Deborah A. Torres, “AI: Archival Intelligence and User Expertise,” *American Archivist* 66, Spring/Summer 2003, pp.51-78; Duff, Wendy M. and Catherine A. Johnson, “Accidentally Found on Purpos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Historians in Archives,” *Library Quarterly* 72, no 4, 2002, p.472.

3) Pugh, Mary Jo. *Providing Archival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Archival Fundamentals Series. II). Chicago: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2005. p. 85.

4) Krause, Magia Ghetu and Elizabeth Yakel, “Interaction in Virtual Archives: The 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s Next Generation Finding Aid,” *The American*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색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의 이용자층이 소수 연구자나 각종 증빙을 위한 청구자를 넘어서 학생을 포함한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과연 복잡한 기록 검색도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각국의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은 물론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검색도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검색도구는 그 구조나 개발 방식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기록원도 몇 년 전부터 검색도구 체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다양한 접근점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검색도구 전반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이 견고하지 못한 가운데 파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투자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두에 밝힌 기록정보 콘텐츠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존기록을 위한 검색도구의 진화과정을 조사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검색도구들을 특징별로 분석해봄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과 편익이 열려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들이 검색도구 개발 정책을 수립·평가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새로운 검색도구의 출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키비스트들의 과제도 제안하고자 하였다.

---

*Archivist*. Vol. 70, No. 2, Fall/Winter 2007, pp. 282-314.

## 2. 검색도구의 발전과 한계

### 1) 검색도구의 개념과 역할

검색도구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아내고,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이다. 기록은 본질적으로 활동의 결과이자 증거이기 때문에 기록의 이해를 도우려면 검색도구는 기록이 가진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기록 검색도구가 원 자료에 대한 단순한 대체물(surrogates)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 검색도구에는 기록을 직접 보지 않아도 기록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야 함은 물론 기록 특유의 계층 구조와 기록이 생산된 맥락에 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다시 말해 그 기록을 “누가, 어떤 일과 관련하여, 어떤 순서로 만들었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검색도구의 개념은 기록물 기술(description)과 유사하다. 기술은 검색도구를 생산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sup>5)</sup> 아키비스트는 출처 및 원질서 원칙에 따라 계층적이고 집합적으로 기술하게 되며, 이러한 작업의 결과물이 곧 검색도구가 된다. 그러나 검색도구는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을 계층적 구조를 갖는 검색도구로 볼 경우, 기술은 검색도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sup>6)</sup>

5) 한국기록학회 엮음.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2008. pp. 63-64.

6) 물론 기술의 결과물은 검색도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록관리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기술에는 이용자에게 기록을 안내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기록의 보존, 처분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포함된다. 즉, 모든 검색도구가 다 기술은 아니며, 기술이 모두 검색도구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벨라도(Bellardo)는 검색도구를 “기록을 물리적이고 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 도구(descriptive tool)로서, 간행되거나 미간행된 경우, 수동식이거나 전자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였고<sup>7)</sup>, 피어스 모세스(Pearce-Moses)는 “컬렉션 내의 정보 발견을 지원하는 도구” 혹은 “기록관에서 자료를 물리적이고 지적으로 통제하고, 자료를 검색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기록물 기술”로 정의하였다.<sup>8)</sup>

이 같은 정의에서 볼 때에도 검색도구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지형 목록(캘린더), 리스트, 가이드, 등록부 등과 같은 검색도구를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이는 계층적 기술과는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검색도구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검색도구는 아키비스트뿐 아니라 기록 생산자나 수집자가 만드는 경우도 많다.

밀러(Miller)는 검색도구를 내부(internal)와 외부(external) 검색도구로 구분하였다. 내부 검색도구는 한 기록관 내에서 사용되는 검색도구를 의미하며, 이관기록 리스트, 생산자가 제공하는 검색도구, 인벤토리/등록부, 색인/목록 등이 포함된다. 외부 검색도구는 출판이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검색도구로서 기록관별 가이드나 주제별 가이드, 국가차원의 종합목록 등을 들 수 있다.<sup>9)</sup>

한편 검색도구를 수직 모형과 수평 모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

---

7) Bellardo, L. J. and L. L. Bellardo,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1992.

8) Pearce-Moses, Richard. *A Glossary of Archives & Records Terminology*.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6. p. 168.

9) Miller, Fredric M.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Arranging and Describing Archives and Manuscripts)』. 조경구 역. 서울: 진리탐구, 2002. p.144-172.

다. 수직 모형은 컬렉션 계층에서부터 건 계층까지 하나의 컬렉션을 계층별로 기술하는 경우로 가장 기본적인 검색도구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인벤토리(inventory)이다. 수직 모형이 맥락을 중시하는 '출처' 기반 접근법이라면, 수평 모형은 주제 적절성(pertinence)을 중시하는 '주제' 기반 접근법으로 볼 수 있는데, 특정 주제 기록을 위한 가이드, 주제 색인이나 이름 색인, 목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검색도구는 출처를 넘나들며 동일한 주제를 가진 기록들을 모아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sup>10)</sup>

전통적으로 서구의 아키비스트들은 컬렉션이나 기록군 별로 만들어지고 기록의 생산자에 대한 정보, 기록물 시리즈 기술, 기타 자료를 찾고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벤토리와 등록부(registers)를 가장 중요한 검색도구로 보았다.<sup>11)</sup> 이렇게 기록으로 안내하는 수직형 검색도구와는 달리 목록은 기록을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검색도구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왔다. 즉, 목록은 하나의 기록관이나 다수의 기록관이 소장한 컬렉션이나 기록군을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밀러는 2가지 유형의 검색도구, 즉 출처 기반 기술과 내용 중심의 색인 목록이 결합된 2단계 검색 시스템이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12)</sup>

이러한 검색도구들은 온라인 형식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수평형 검색도구의 경우, 자동색인 등의

---

10) 윌리엄스, 캐롤라인. pp.82-83.

11) 인벤토리는 1930-40년대에 미국 국립기록관이 자신들이 개발한 검색도구에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한편 미국 의회도서관은 자신들의 검색도구를 “컬렉션 등록부(collection registers)”라고 지칭하였는데, 양 검색도구는 기록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유사한 정보를 제공한다(Jimerson, Randal C. "Archival Description and Finding Aids." *OCLC Systems & Service*, Vol. 18, No.3, 2002: pp. 125-129).

12) Miller, Fredric M. pp.126-127.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수직형 검색도구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한 경로로 변화하고 있다. 수직형 검색도구는 기록관리의 기본적 도구라는 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2) 수직형 검색도구의 발전과정

인벤토리와 같은 수직형 검색도구는 전자화 되면서 다양한 모형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들 수직형 검색도구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매우 입체적인 모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직형 검색도구가 진화하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우선 제1기는 전통적 검색도구를 그대로 전자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수직형 검색도구는 출처와 원질서 준중의 원칙에 충실하고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여주는” 집합적 기술을 강조한다. 서구에서는 20세기 이후 일명 “네덜란드 매뉴얼(Dutch Manual)”이 보급되면서 이러한 원칙에 따른 정리·기술이 확산되었고, 이는 검색도구로 구현되었다. 온라인 환경이 도래하자, 기록관리기관들은 인벤토리 등과 같이 책자형태의 검색도구를 거의 그대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기술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풍 준중의 원칙에 따라 기록의 출처별로 크게 구분할 후, 이를 기록군에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서 계층적으로 기술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현재 많은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이러한 구조의 온라인 검색도구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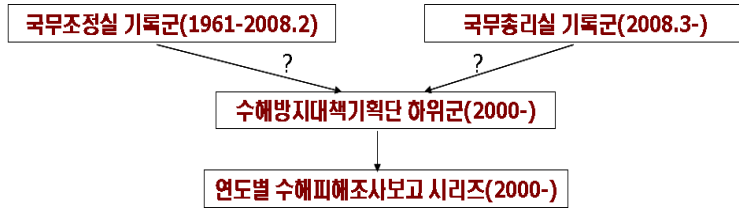


〈그림 1〉 수직형 검색도구 사례 13)

제2기는 기록과 생산자를 분리하여 기술하는 단계이다. 기존의 검색도구에서는 기록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생산자 연혁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방식은 출처가 복합적인(multi-provenance) 기록군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냈고(그림 2 참조), 생산자 기술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 자체에 대한 기술(내용, 구조)과 생산자에 대한 기술(맥락)을 분리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된다. 즉, 전거레코드를 만들어 생산자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거레코드는 도서관에서와 같이 전거통제의 기능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산맥락에 대한 정보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보적’ 기능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맥락 통제’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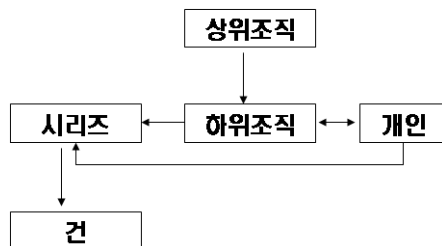
13)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1』 (대전: 국가기록원, 2007) 수록 정보를 활용하여 구성.

14) Dryden, Jean. “From Authority Control to Context Control,”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Vol 5. No. 1/2, 2007. pp 1-13.



〈그림 2〉 복합 출처 사례

기록과 생산자를 분리하여 기술하는 방식에도 2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미국과 호주의 경우로 대별될 수 있다. 즉, 호주와 같이 완전 분리하는 경우와, 미국과 같이 군 계층 기술을 유지하되 생산자 기술을 별도 기술한 후 연계하는 구조이다. 호주의 기술방식을 “동적 기술(dynamic description)”이라 지칭하는데, 복합 출처 문제를 해결하고, 빈번한 조직 변천에 따라 기술 내용을 계속 수정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호주 국가보존기록관(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A)은 군이나 하위군 기술을 하지 않고 시리즈 이하 기술만을 하고 있다. 군이나 하위군 기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배경 정보는 전거레코드에 별도로 기술하게 된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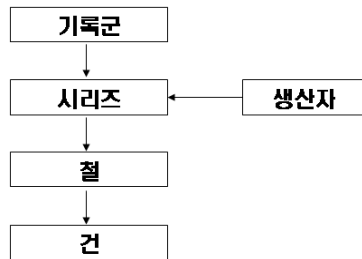


〈그림 3〉 완전분리형: 호주 NAA<sup>15)</sup>

15) 호주 NAA의 기술 편람인 “Commonwealth Record Series(CRS) System Manual”을 참조하여 재구성.

출처: [http://naa12.naa.gov.au/Manual/Introduction/CRSIntroduction.htm]

미국 국가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NARA)의 대표적 검색도구인 ARC(Archival Research Catalog)의 경우, 생산자 기술을 분리하지만 군이나 하위군 기술을 하되 생산자에 대한 정보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생산자 레코드, 즉 전거레코드와 링크시켜주는 방식을 채택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절충형: 미국 NARA<sup>16)</sup>

제3기는 기능 엔티티를 별도로 기술하는 단계이다. 생산자를 위한 전거레코드에서 특히 기능 부분을 분리하여 기술한 후 이를 기록물 기술 레코드 및 전거레코드와 링크하는 방식이다. 기능 출처주의(functional provenance) 개념이 대두되면서 기록을 산출한 업무나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은 분류체계는 물론 검색도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직 기반의 분류체계를 기능 기반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과거 기록물이나 생산자 기술요소의 하나로 기입되던 ‘기능’을 별도 엔티티로 분리하여 기술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이러한 경향은 보존기록 검색도구 영역에서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립기록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7)</sup>

16) “About ARC”에 실린 모형을 간략화. 출처:

[<http://www.archives.gov/research/arc/about-arc.html>].

17) 뉴사우스 웨일즈 주립기록관의 검색도구 “State Records Archives Investigator”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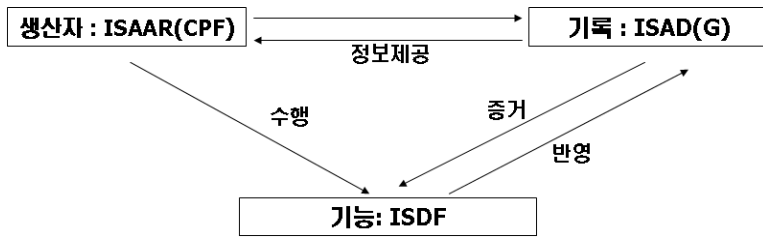
기록-생산자-기능이라는 다중 엔티티 구조는 준현용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공식 표명되었는데,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실행문제를 다룬 표준 ISO 23081-2에서는 다중 엔티티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들이 국제 표준에 따라 5개의 엔티티 별로 기술 요소를 정하고 있다. 기능(업무)을 별도 레코드로 기술하는 방식은 이렇게 국제 및 국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의 구조가 다중 엔티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보존기록을 위한 기술 영역에서는, 기록을 다계층으로 기술하기 위한 표준인 ISAD(G), 보존기록 생산자를 위한 기술 표준인 ISAAR(CPF)와 함께 ‘기능’을 표준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표준인 ISDF(International Standard for Describing Functions)가 2007년 제정됨으로써<sup>18)</sup> 다원적 엔티티 구조의 검색도구를 위한 표준들이 구비되었다. 이에 따른 검색도구의 구조는 <그림 5>와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

기록(시리즈, 건), 조직(상위조직, 하위조직, 부처 등) 뿐만 아니라 기능(Function, Activities)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참조: [http://investigator.records.nsw.gov.au/Advanced.aspx]). 뉴사우스 웨일즈 주는 이미 2001년에 공표한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기록(record), 행위주체(agent), 기능(function)의 엔티티로 구분하여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참조: NSW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 – Technical Specification, 2001).

- 18) ICA의 모범실무 및 표준위원회(Committee on Best Practices and Standard, CBPS)는 기록 생산 맥락에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존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능’을 기술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개발하여 2007년 5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하였다.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미국의 기능 기술 사례와 ISO 15489, ISO 23081과 같은 국제표준을 토대로 하였다고 한다(참조: [http://www.ica.org])



〈그림 5〉 기능 엔티티가 추가된 검색도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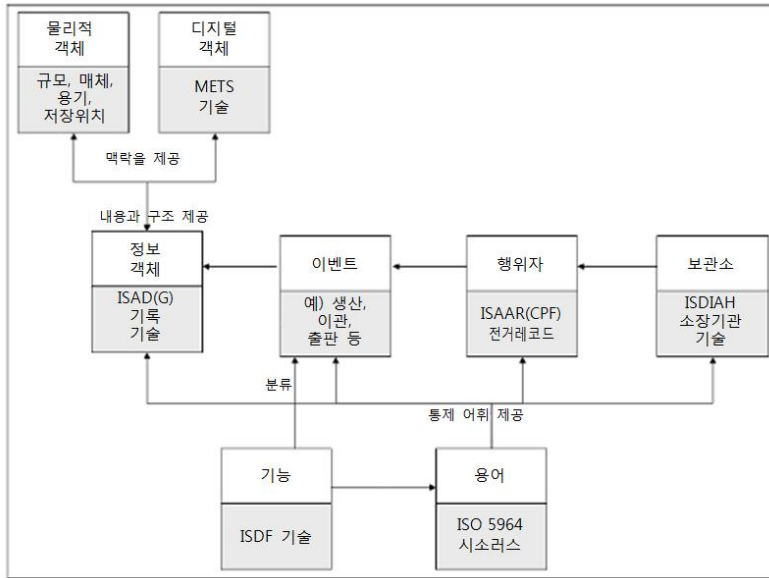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검색도구들이 각국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진화의 단계가 아니라 각국의 기록관리 환경에 맞춘 구조적 특징으로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의 흐름으로 볼 때 엔티티가 다중화 되는 과정은, 아날로그 검색도구의 디지털 재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전자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록의 계층성은 유지하되, 고정된 하나의 위계에 얽매이지 않는 다중 엔티티 구조는 데이터의 연계와 재활용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다중 엔티티 모델은 국제기록기구회의(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CA)가 개발하여 2009년부터 배포하기 시작한 ICA-AtoM에도 구현되어 있다. ICA-AtoM은 웹기반 기록물 기술을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서 ICA의 표준 ISAD(G), ISAAR(CPF), ISDF, ISDIH<sup>19)</sup> 등에 따라 복수의 기록관리기관이 소장한 기록을 다국어로 기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sup>20)</sup> 이 소프트웨어의 데이

19) ISDIH(International Standard for Describing Institutions with Archival Holdings)는 기록소장기관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기 위한 규칙으로 ISDF와 마찬가지로 ICA/CBPS에서 개발하여 2008년 발표하였다.

20) AtoM은 'Access to Memory'를 의미하며, 2009년 11월부터 베타 버전을 보급 중

터모델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ICA-AtoM의 데이터 모델<sup>21)</sup>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롬비아 주의 역사기록을 위한 포털 사이트인 ‘MemoryBC’도 ICA-AtoM을 이용하여 브리티시 컬롬비아 주의 약 200개 기록관리기관 소장 자료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22)</sup> 또한 캐나다의 기술규칙인 RAD(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를 위한 템플릿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다. 참조: [http://ica-atom.org].

21) Peter Van Garderen, “The ICA-AtoM Project and Technology”(Third Meeting on Archival Information Databases, Rio de Janeiro, Brazil. 16/17 March 2009).[http://ica-atom.org/VanGarderen\_TheICA-AtoMProjectAndTechnology\_AAB\_RioDeJaniero\_16-17March2009.pdf]

22) 브리티시컬롬비아기록협회(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가 운영. 참조: [http://memorybc.ca/index.php/page/about]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존기록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기술, 즉 수직형 검색도구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오랫동안 철, 건 목록 구조를 견지해왔다. 출처주의나 집합적 기술의 개념 없이, 기록의 소재를 안내하는 수단으로서 목록을 만드는 작업에 치중했다. 개정 이전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철 목록을 기본목록으로, 건 목록을 세부목록으로 작성하고 양 목록을 연계하는 구조였다. 철 목록이라고 하지만 기록철에 대한 집합적 기술이 적용된 행태는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6년부터 집합적 기술을 시도하였고, 2007년 계층 체계를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기술을 실시하였다. 군--하위군--계열--하위계열--철--건의 계층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군, 계열, 철, 건을 필수 계층으로 설정하였다. ISAD(G)를 토대로 기술규칙을 만들고<sup>23)</sup> 이 규칙에 따라 집합적 기술을 시도하였다.

국가기록원은 2006년부터 ISAAR(CPF)를 준수하여 ‘생산기관 연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는데, 조직을 기관--하부조직(국)--하부조직(과)이라는 3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별로 레코드를 구성한 후 상 하위 조직을 연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24)</sup> 또한 정부 부처의 업무와 단위과제를 분석하여 기능 시소러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sup>25)</sup> 생산기관 연혁 DB와 기능 시소러스 DB는 기록 기술 DB와 연계되는 구조의 검색도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기록철 기술레코드와 관련 하위조직(과) 기술레코드, 기능어(우선어)가 연계되어, 이용자는 검색도구를 통해 기록, 조직, 기능어 중 어떤 항목으로 검색해도 연계 구조를 이용하여

23) 「영구기록물기술규칙」은 2008년 12월 공공표준으로 제정됨.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http://www.archives.go.kr)) 표준화 현황 참조.

24)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2009년 생산기관 연혁정보 구축 계획(안).” 20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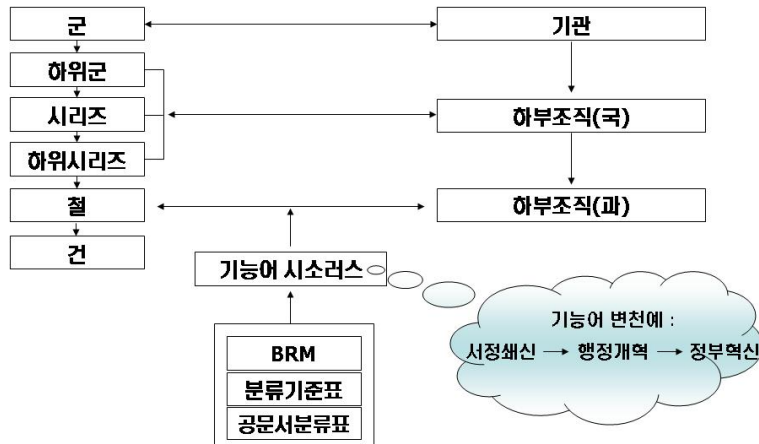
25)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2009년 기능 시소러스 구축 결과.” 2009. 10.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sup>26)</sup>

〈표 1〉 국가기록원 검색도구의 발전과정

현재		개발 중	
0기	1기	2기	3기
전/철 목록	집합적 기술	생산기관 연계	기능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목록(기본목록) 건목록(세부목록)</li> <li>•집합적 기술 적용 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하위군-계열-하위계열-철-건</li> <li>•필수계층 : 군, 계열, 철, 건</li> <li>•ISAD(G)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계층 시스템: 기관-하부조직(국)-하부조직(과)</li> <li>•ISAAR(CPF)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능어 시소러스 구축</li> <li>•기록철 기술, 하위조직(과) 기술, 기능어(우선어) 연계</li> </ul>



〈그림 7〉 국가기록원 검색도구의 구조 모형(안)

26) 기술 데이터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집합적 기술 전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은 아쉽게도 2010년 말로 연기되었으며, 따라서 기록 기술 DB에 이미 상당한 규모로 구축된 생산기관 연혁 DB, 기능어 DB가 연계되는 것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기술계층별 검색 웹사이트 개시 관련 검토 보고” 2009. 12.

### 3) 수직형 검색도구의 한계

수직형 검색도구는 기록의 속성을 반영하고 기록관리 원칙을 수용하여, 이용자에게 기록의 생산 맥락과 구조를 함께 보여주는 데에 성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의 수직형 검색도구는 아키비스트 중심이며, 많은 이용자들에게 수직형 검색도구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편리하고 자유로운 의미 검색과 주제 검색을 경험한 이용자들은 현재의 기록물 검색도구를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다고 느낄 것이다.

둘째, 공급자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의 검색도구가 부재하거나, 기술 작성의 우선순위가 이용자의 요구와 다를 수가 있다. 또한 아키비스트는 출처와 맥락을 중시하며, 이를 통한 검색을 강조하지만, 기록에 담긴 내용에 대한 다양한 주제 접근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검색 대상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많은 기록 검색도구들이 ‘특정 기관의 소장 기록’에 국한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장 위치가 도서관이든 박물관이든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진 한 컷이나 영상 한 장면을 요구하는 등 이용자의 요구는 매우 폭넓게 개진되고 있는데, 현재의 수직형 검색도구만으로는 이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넷째,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디지털 원문 제공과 함께 건(item)기술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원문은 기록물 건 기술에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이나 첩과 같은 하위계층을 기술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미국 NARA의 ARC

의 기술 통계를 보면 군 기술 520개, 컬렉션 기술 2,365개, 시리즈 기술 10만 2,598 개, 철 기술 326만 5,988 개, 건 기술 29만 2,887건이다.<sup>27)</sup> 피라미드식 계층구조를 보면 건 기술의 숫자가 가장 많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철 기술보다 훨씬 적다. 즉, 대체로 건 계층까지 기술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의 계층에서 아래 계층 순서로 기술하고, 따라서 상위 계층 기술을 우선한다는 집합적 기술원칙을 따른 것이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특히 사이버 상에서 ‘기록건’과 같은 구체적 기록단위를 검색하기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은 수직형 검색도구의 개선에 있기보다는 수직형 검색도구 외의 다양한 접근수단을 제공하고, 개발방식을 바꾸는 데에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다양한 검색도구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그 경향을 사례와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3. 검색도구의 새로운 전개

보존기록을 위한 각국의 검색도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다양한 검색도구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수직형 검색도구와 다르지만, 그렇다고 색인 위주의 전통적인 수평형 검색도구와도 차이가 있다. 새로운 흐름을 유형화하면, <표 2>와 같이 복합화, 통합화, 개방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경향을 대표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도록 하겠다.

---

27) [<http://www.archives.gov/research/arc/about-arc.html>] [2010. 1. 4 인용]

〈표 2〉 검색도구의 새로운 경향

특징	설명	사례
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 및 특정 이용자층을 고려한, 대중성 있는 검색도구 출현</li> <li>- 기록생산, 검색, 활용 등의 기능이 결합된 검색도구 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TNA의 Research Guides A-Z</li> <li>- 국가기록원의 온라인 주제서비스</li> </ul>
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유산기관 간 통합검색 제공</li> <li>- 특정 매체나 주제별로 여러 기관 소장기록 통합검색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의 Europeana</li> <li>- 호주 NLA의 PictureAustralia</li> </ul>
개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2.0 환경에서 이용자가 주제해설, 메타데이터 생산, 오류 수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도구 개발에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시건 대학의 차세대 검색도구 프로젝트</li> <li>- 영국 TNA의 Your Archives</li> </ul>

### 1) 복합화

우선 검색도구의 구조가 복합화 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가령 검색도구나 기록이 일련의 스토리와 연계됨으로써 ‘검색도구에 대한 검색도구’의 역할을 하거나, 검색 기능을 포함한 복합적 성격의 콘텐츠 구조를 갖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말하자면 새로운 형태의 수평형 검색도구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스토리 연계형은 주제해설과 검색도구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가 특정 사건, 인물, 정책 등에 대한 해설과 함께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국립기록관(The National Archives, TNA)의 “연구 가이드 A에서 Z까지(Research Guides A to Z)”이다. 이 가이드는 주제해설, 핵심 기록 및 관련 자료 소개, 수직형 검색도구와의 연계 등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250여개 주제 항목에 대하여 가이드

를 제공하고 있는데, <표 3>은 그 중 타이타닉 호에 대한 가이드의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제 설명이나 기록 소개 중에도 관련 문서를 소개하고 해당 검색도구와 링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령 “타이타닉 호의 선박등록문서는 [BT 110/426/1](#)에서 볼 수 있다”거나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수여한 메달(MT 9/2922)” 등과 같이 설명 중에 관련 기록의 검색도구로 연계하고 있으며, 핵심 기록의 경우, “퀸즈랜드에서 승선한 승객에 관한 기록은 [BT27/776/2](#)에 있고, ...인명, 출발항, 도착항으로 검색가능” 등과 같이 해당 기록에 대한 검색도구와 연계시켜주면서 동시에 검색방법이나 접근점도 소개하고 있다.<sup>28)</sup>

<표 3> 영국 TNA의 연구가이드 A-Z 사례 : 타이타닉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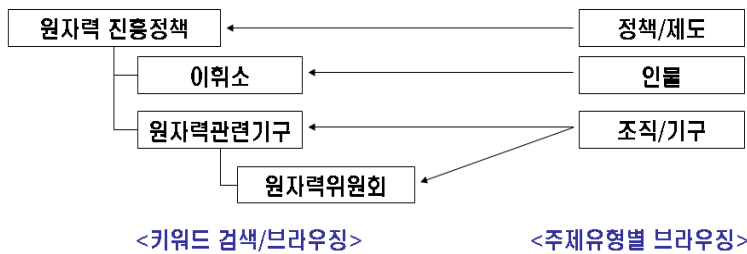
1. 주제해설	타이타닉호 사건 개요
2. 타이타닉 호 관련 핵심 기록 o 승객 리스트 o 승무원 리스트 o 재난 조사 o 타이타닉 호 편찬자료	관련 기록에 대한 해설 해당 검색도구로 링크 검색 방법 및 접근점 안내 등
3. 타이타닉 CD-ROM	각종 CD-OM 소개 (TNA출간 단행본 및 승객명단 DB 등 수록)
4. 기타 기록	앞에서 거론하지 않은 기록의 간략한 소개와 검색도구로의 연계
5. TNA외 미소장 기록	다른 기관 소장 관련 기록 소개 및 관련 웹사이트 연계
6. 참고자료	추가 독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자료: “Research Guides A-Z: The Titanic”에서 정리<sup>29)</sup>

28) BT 110/426/1, BT27/776/2 등의 기록 참조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검색도구 혹은 기록 원문 이미지와 링크된다.

29) [http://www.nationalarchives.gov.uk/catalogue/RdLeaflet.asp?sLeafletID=96]

국가기록원은 “관련 콘텐츠, 관련 기록정보가 종류·레벨에 관계없이 N:N으로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색 체계”<sup>30)</sup>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대규모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나라기록 포털’을 통해 온라인 주제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서비스도 복합적 검색도구의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서는 국정과제를 공공질서,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등 28개 카테고리<sup>31)</sup>로 나누어 핵심 주제항목을 선정한 후, 각 항목 별로 주제 설명과 기록물 목록을 연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주제 유형을 10가지로 구분하고<sup>32)</sup> 유형별 브라우징(자모순 배열)을 통해 주제 항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년 2월 현재 5700여 개 주제항목이 개발되어 서비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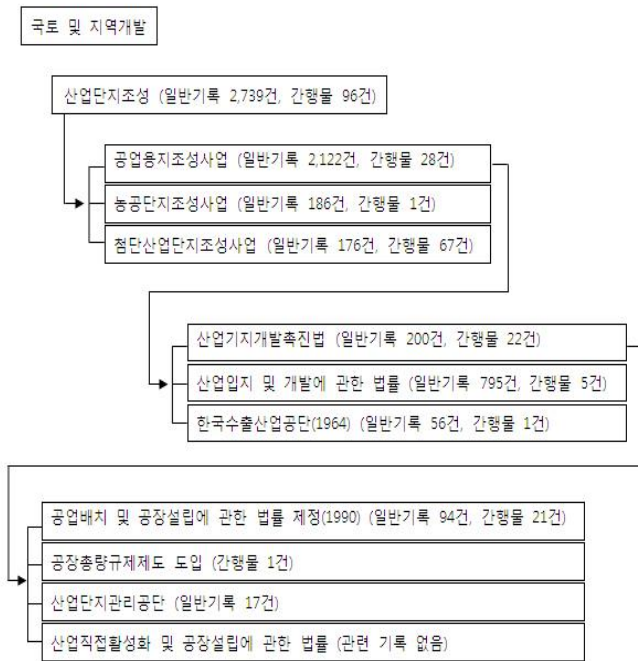


<그림 8> 국가기록원 온라인 주제서비스 구조와 사례

- 30) 국가기록원. 기록정보화팀.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 대전: 국가기록원, 2006. 3.
- 31) 28개 카테고리 : 공공질서, 과학기술, 교육, 국가보훈, 국무조정/감사/홍보, 국방/병무, 국토 및 지역개발, 노동, 농림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법무/법제, 보건, 보육/가족/여성,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 에너지및자원개발, 외교, 인사/조직/전자정부, 재난방재민방위, 재정/금융, 정보통신, 조달및물자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통계, 통상, 통일, 환경.
- 32) 10개 주제 유형 : 정책/제도, 사업, 역사적사건, 인물, 조직/기구, 사건/사고, 조약/회담, 회의, 행사/이벤트, 기타

항목별로 주제 설명(근거법규, 배경, 내용, 집필자, 작성/수정 일자, 참고자료)과 함께 관련 기록 목록이 포함된다. 계층적인 주제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생산기관별, 주제 유형별 브라우징(자모순 배열) 등 다원화된 방식으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9>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제항목인 <산업단지 조성>를 사례로 그 계층 구조의 일부를 살펴본 것이다. 아울러 해당 항목에 연계된 기록물 건수도 함께 조사해 보았다(2010. 1. 10 검색결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주제항목들은 같은 기술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림 9> 국가기록원 온라인 주제서비스의 계층 구조 사례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직형 검색도구와의 연계 없이 주제 검색 구조가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기록에 대한 계층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제 해설에 건 계층 기록물 목록이 바로 연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가령, <산업단지 조성>이나 그 하위 계층인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2천 건이 넘는 기록의 목록과 일부 원문이 제공되고 있다. 2천 여 개의 기록물을 훑어보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은 이용자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반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이 관련 기록이 없는 항목도 있다. 주제 항목을 선정할 때 소장 기록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주제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서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기록이 전혀 없는 주제 항목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반 교육콘텐츠가 아닌, 기록 이용을 촉진하는 도구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통합화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을 지원하는 도구는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최근 들어 국가적이거나 국제적 차원으로 통합 검색의 범위가 확장되고, 참여하는 기관들도 기록관은 물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다양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유산기관 소장 자료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통합 검색도구로는 2008년 11월 출범한 유럽연합의 유로피아나(Europeana)를 들 수 있다. 유로피아나는 유럽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목록뿐 아니라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필사기록, 미술작품, 녹음자료, 지도, 사진,



영화, 도서 등)를 의미(시기, 지역, 인물, 사물)에 기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년 12월 초, 유로피아나의 온라인 콘텐츠 수는 5백만 점을 돌파했으며 2010년까지 달성목표는 1천만 점이다.<sup>33)</sup>

이렇게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종의 문화유산기관이 소장한 기록을 매체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정 매체나 주제에 한정하여 여러 기관이 소장한 기록을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색 도구도 있다. 호주 국립도서관(NLA)의 'PictureAustralia'는 '호주'라는 주제와 '사진'이라는 매체에 국한하여 통합 검색을 제공하는 사례이다. 이 사이트는 1998년 'ImageSearch'라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하였고 호주 전쟁기념관, 호주 국립도서관, 뉴사우스웨일즈 주립 도서관, 타스마니아 주립도서관,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호주국립기록관, 퀸즈랜드 대학도서관이 가세하였다. 2000년 서비스를 런칭하여 현재 약 100여 개의 공공 및 민간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미술관이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컬렉션은 호주에 관한 이미지로 구성되며, 소재는 예술작품(회화, 소묘, 포스터 등), 사진(사람, 장소, 사건 등), 물건(조각, 수공예품, 의상, 무기 등) 등 다양하며, 이용자는 섬네일 이미지와 풀 사이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고, 고해상도 사본을 주문할 수 있다.<sup>34)</sup>

이밖에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정보 콘텐츠를 협력적으로 구축한 사례로는 'Moving Here'가 있다. TNA를 중심으로 30여 개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소장 기록을 토대로 카리브인, 유태인, 아일랜드인, 남아시아인의 영국 이민에 대한 콘텐츠를 구

33) [<http://www.europeana.eu/portal/index.html>]

34) [<http://www.pictureaustralia.org/>]

축하였다.<sup>35)</sup> 이 콘텐츠의 경우, 검색도구의 기능 보다는 이민사 해설, 교육 및 학습자료 제공, 전시 등의 기능이 더 많이 포함된 경우이지만, 이 사이트가 수많은 기록관의 기록 검색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매개 기능을 간과할 수 없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말 ‘기록물통합검색시스템’(일명 ‘기통검’)을 개발하고, 국가기록원 및 중앙행정기관이 소장한 기록에 대한 통합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 뿐만 아니라 준현용 상태에 있는 각 부처 기록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검색을 통해 이용자는 기록의 소장 위치를 몰라도 원하는 주제에 관련된 기록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다. 한편 기록관 입장에서 볼 때, 통합검색 도구는 기록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호주 NAA가 2000년에 호주 국립도서관이 관리하는 웹 사이트 ‘PictureAustralia’에 NAA의 사진 데이터베이스 ‘PhotoSearch’ 목록을 포함시킨 이후 웹 사이트 방문자가 급증하였는데, ‘PictureAustralia’를 통해 ‘PhotoSearch’에 접근한 방문자가 첫 달에만 1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sup>36)</sup> 즉, 여러 기관들과 메타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이용자층에게 소장 자료의 존재를 노출시킬 수 있다.

---

35) [www.movinghere.org.uk]

36)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Annual Report 2001. [Foulonneau, Muriel and Jenn Riley. *Metadata for Digital Resources: Implementation, Systems, Design and Interoperability*, Oxford: Chandos Publishing, 2008, p. 117에서 재인용].

### 3) 개방화

사무엘리언(Samouelian)은 미국 대학기록관 웹사이트에서의 웹 2.0 수용 정도를 조사하며, 기록관이 디지털 콘텐츠를 개선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여 웹 2.0을 포용하게 될 것임을 전망하였다.<sup>37)</sup> 검색도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서 이용자 참여 및 개방화 전략을 채택하는 실험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웹 2.0 기술을 이용한 이용자 참여는 검색도구를 만드는 방식의 변화일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검색도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크로즈(Magia Ghetu Krause)와 야켈(Elizabeth Yakel)은 차세대 검색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이용자 참여 및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높여주는 웹 2.0 기법 적용이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하였다.<sup>38)</sup> 이들은 ‘북극곰 원정대에 관한 디지털 컬렉션(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s)’을 위한 검색도구 구축을 위해 북마크, 방문자가 덧붙인 코멘트, 이 페이지를 본 이용자가 본 다른 페이지(협력적 필터링), 이용자 프로필 등의 기법의 유용성을 실험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수가 기대보다 적었다는 한계는 있었으나, 이들은 온라인 이용자와 아키비스트의 직·간접적 상호작용, 협력적 필터링, 기타 웹2.0 특징이 전통적인 검색도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검색도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술 및 검색도구 개발에 이용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37) Samouelian, Mary. Embracing Web 2.0: Archives and the newest generation of Web Applications. *The American Archivist*. vol. 72, Spring/Summer 2009. pp. 42-71.

38) Krause, Magia Ghetu and Elizabeth Yakel, “Interaction in Virtual Archives: The 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s Next Generation Finding Aid,” *The American Archivist*. Vol. 70, No. 2, Fall/Winter 2007, pp. 282-314.

이미 테리 쿡(Terry Cook), 웬디 더프(Wendy Duff)와 번 해리스(Verne Harris), 메리 조 푸(Mary Jo Pugh) 등 여러 학자들이 이미 개진한 바 있다. 푸는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재의 검색도구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제공 아키비스트와 이용자가 기록 이용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기술에 추가해야 하며, 특히 아키비스트는 이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검색도구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9)</sup> 웬디 더프와 번 해리스 역시 아키비스트나 기관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부여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up>40)</sup> 포스트모던 기록학자인 테리 쿡은 기록은 정적인 박물이 아니며, “이용을 통해 조정되고 영향을 받는다, 항상 변하는 구조물”이라고 주장하며 이용자 참여를 강조하였다.<sup>41)</sup>

이용자가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우선 기록 해제와 주제 설명에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영국 TNA의 ‘Your Archives’의 경우, 위키피디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TNA 및 영국 내 다른 기관 소장 자료에 대해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페이지이다. 가령 ‘연구 가이드 A-Z(Research Guides A-Z)’의 경우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계속 확대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위키피디아 모델은 기록관의 제한된 인력과 지식의 한계를 이용자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42)</sup>

---

39) Pugh, Mary Jo. 2005. p. 85.

40) Duff, Wendy and Verne Harris, “Stories and Names: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Archival Science*, Vol. 2, 2002. p. 279. (Krause & Yakei 2007에서 재인용).

41) Cook, Terry,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Vol. 1, 2001. pp. 3-24. (Krause & Yakei 2007에서 재인용).

42) [<http://yourarchives.nationalarchives.gov.uk/>]

민간 영역에서 이용자가 기록에 주석을 달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Footnote’는<sup>43)</sup> 주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알려지지 않은 기억과 기록을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아카이빙 하고 이를 서비스하는 사이트이다. 미국독립전쟁, 남북전쟁, 1·2차 세계대전, 미국대통령, 역사적 신문, 귀화문서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주요 역사적 사건, 개인과 가문, 특정 기록 유형을 선정하여 관련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이에 대한 기술을 통해 검색을 지원한다. 이용자는 디지털화한 문서를 검색하고 원문을 출력하거나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자신들이 소장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업로드 하는 이미지에 사람·장소·일자과 기타 주석(annotation)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검색한 원문 이미지에도 주석과 하고 싶은 말을 추가할 수 있다. 자신의 갤러리에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 편집할 수 있으며 다른 이미지와의 연계 및 특정 이미지를 강조(Spotlights)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sup>44)</sup>

이용자가 기록의 색인 작성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유타 계보협회의 ‘FamilySearch’는 전 세계의 계보 검색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이를 위한 색인 작성에 10만 명이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다. 협회가 디지털 이미지와 색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색인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검색도구의 일부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TNA의 ‘Moving Here’에서처럼 이용자가 메타데이터나 검색도구를 넘어 기록 자체의 생산에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43) [www.footnote.com]

44) 한편 NARA는 Footnote.com과 방대한 소장기록 일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2007년 협약을 맺었다. 450만 페이지에 달하는 역사기록을 Footnote사가 디지털화하고 이를 NARA 열람실 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www.footnote.com/nara].

PictureAustralia의 경우, 이용자가 야후 플리커(Flickr)를 통해 사진기록에 대한 설명과 사진 자체를 업로드 함으로써 기록 컬렉션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검색도구의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지만, 웹 환경에서 사회적 네비게이션 S/W를 기술 시스템에 포함시키면 이용자는 여러 방식으로 아키비스트, 컬렉션,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기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정보를 남김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들이 그 자료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지역이나 행사, 사건과 관련된 옛 사진에 설명이 없을 경우 사진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집단으로부터 널리 정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도구 개발에 이용자가 참여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아키비스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용자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며, 둘째,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점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 중심의 도구 개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아키비스트가 만든 검색도구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통해 검색도구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 4. 쟁점과 과제

이렇게 다양한 검색도구의 개발은 기록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뿐 만 아니라 검색도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들도 부상하고 있는데,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다.

## 1) 탈 맥락화

검색도구의 복합화와 통합화에 따라 제기되는 쟁점은 우선 ‘탈 맥락화’를 들 수 있다. 출처 접근이 아니라 주제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기록건, 철 목록이 바로 주제 해설과 연계되는 현상이 많아졌다. 기록이 생산 맥락으로부터 이탈하여 과편화된 방식으로 통합 검색도구나 주제 해설도구에 편입될 경우, 자칫 기록을 편의적이거나 왜곡하여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록의 구성 요소를 생산 맥락으로 이탈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고 새로운 수용환경에 위치시킴으로써 다시 새로운 기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 상품의 재생산 과정으로 볼 수 있다.<sup>45)</sup> 그러나 기록의 경우 이러한 혼성 콘텐츠에만 의존할 경우 증거로서의 원래 가치를 보존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콘텐츠 서비스의 효율성도 낮아진다.

복합형·혼성형의 다양한 검색도구를 개발하여 서비스하되, 이것들이 수직형 검색도구와 연계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TNA의 연구 가이드와 국가기록원의 온라인 주제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러한 ‘연계’의 유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검색도구가 꽃이라면 수직형 검색도구, 즉 기술은 뿌리에 해당한다. 뿌리 없이 지속적으로 꽃을 피울 수는

45) 도정일은 문화품목과 그 구성요소들을 생산문맥으로부터 이탈시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고 새로운 수용환경에 위치시키며, 고유 문맥과 토착 환경으로부터 단절되고 과편화된 이질적 문화요소들을 뒤섞어 새로운 문화상품을 구성해내는 문화 현상을 ‘탈 문맥화’로 지칭하였다(도정일, 『시정전체주의와 문명의 야만』, 서울: 생각의 나무, 2008, pp.55-56).

없다. 수직형 검색도구 없는 주제 서비스는 절화(折花)로 꽃꽂이를 한 것과 같아서 일정 기간은 아름답고 유용하지만, 지속가능성을 갖기 어렵다. 즉, 수직형 검색도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이에 대한 접근점을 다원화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검색도구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수직형 검색도구와 다양한 수평형 검색도구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긴밀히 연계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2) 편견과 객관성 유지

검색도구에 주제 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역사적 사건이나 정책 해설에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검색도구인 ‘기술’에서도 아키비스트의 입장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제 해설이 포함된 복합적 콘텐츠는 편견이나 특정한 시각이 더욱 반영되기 쉬운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1953-55년 한글 간소화 파동’과 같이 그다지 논쟁적이지 않은 주제에서도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어문 정책”이었다는 측면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결국 실패”했다는 측면 중 강조점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주제 해설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가기록원은 ‘나라기록 포털’을 통해 주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주제 해설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표 4〉 ‘1953-55년 한글 간소화 파동’에 대한 2가지의 주제 해설

1안)

한글간소화 파동은 1950년대 초반 한글 활용을 진작시키고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시책에서 빚어진 일련의 갈등을 말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 초기부터 한글전용과 간소화, 가로쓰기 등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1953년 한글날 내린 “한문을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하되 복잡하지 않은 옛날 철자법을 사용하라”는 유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미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익숙한 국민들과 학계, 정치계,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2년 만에 무산되었다.

2안)

한글간소화 파동은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한글 전용화와 개회기 구 맞춤법 사용 등을 골자로 한 유시를 발표한 이후 빚어진 일련의 갈등을 말한다. 이 시책은 일반 국민의 여론과 한글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무시한 일방적 조치였다는 점에서 야당, 언론, 학계의 반발을 낳았고, 결국 1955년 9월 이 대통령이 이 시책의 추진을 포기한다는 담화 발표로 끝이 났다.

자료 : 국가기록원, 『학습도움사전』(2009 집필, 미간행)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기록생산의 맥락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는 한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 집필자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이용자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설’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기록을 기술할 때에도 아키비스트의 입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아키비스트의 존재를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기록학자들의 의견이다. 헤더 맥네일(Heather MacNeil)은 기술 과정에서 아키비스트가 행하는 편집자로서의 역할에 주목하며, 아키비스트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검색도구를 생산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웹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써 현재의 기술 관행이 야기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46)</sup> 더프와 헤리스 역시 아키비스트들이 이용자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입장과 세계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미셸 라이트(Michelle Light)와 탐 하이리(Tom Hyry)는 같은 맥락에서 이용자에게 아키비스트의 존재를 주지시키고 기술이 아키비스트의 지식과 경험을 반영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기술에 판권지(colophons)<sup>47)</sup>와 같은 부분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라이트와 하이리는 또한 온라인 검색도구에 다양한 관점의 가진 대중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웹 기반 주석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기술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자료 이용에 관한 정보, 다른 컬렉션 안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웹 주석을 운영함으로써 정적인 검색도구를 동적인 도구로 전환시키고, 열린 기술 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술 업무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정 컬렉션이나 주제에 관심 있는 이용자 집단을 발굴할 수도 있다는 이점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기술이나 주제해설 집필 시,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어떤 사람이 해당 내용을 작성했는지 밝히고 이용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웹에 마련함으로써 열린 기술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각 주제해설마

46) MacNeil, Heather, "Picking Our Text: Archival Description, Authenticity, and the Archivist as Editor," *American Archivist* 68, Fall/Winter 2005. p. 264-278.

47) 책의 전체 내용이 완성된 후에 작성되거나 인쇄되는, 저작물의 생산과 관련된 선언. 판권 페이지는 일종의 메타 기술(metadescription)임. 보존기록 기술과정 중에 아키비스트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료에 대한 지식, 결정과정, 심지어 인물 정보에 관한 생각이 포함된 판권지를 생산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Light, Michelle and Tom Hyry, "Colophons and Annotations: New Directions for the Finding Aid," *The American Archivist* 65, Fall/Winter 2002, pp. 216-30.

다 집필자와 그 소속을 밝히고 있지만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검색도구의 전문성이나 아키비스트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용자의 편견이 혹시 다른 이용자를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적 웹의 시대에서는 이용자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해 ‘다양성’을 취하는 것이 ‘객관성’ 논란의 해법임이 분명하다.

### 3) 이용자 참여방식과 질적 통제

기록의 경우, 기록 자체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의 진본성과 무결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메타데이터, 즉 검색도구 작성에 참여할 경우, 정확성 자체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는 위키피디아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콘텐츠의 일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록의 경우 기록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기술한 내용의 신뢰 수준을 확인하고 질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확인과 통제도 기록관이 다 할 수는 없으며 이 역시 이용자집단, 즉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기록관의 경우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 혹은 ‘프로튜어(proteur)<sup>48)</sup> 집단’을 발굴하고 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가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록 검색도구와 관련해서는 거의 유일한 실험이 앞에서 밝힌 “복극

---

48)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갖추고 주로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Professional’과 ‘Amateur’의 합성어.

곰 디지털 컬렉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통합검색시스템에서도 사회적 태깅 등 몇 가지 이용자 참여 도구를 적용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 정도는 미약하지만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효과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검색도구 생산에서 이용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일종의 ‘롱테일’<sup>49)</sup>에 해당할 것이다. 머리(많은 사람들이 찾는 핵심 기록 기술 및 색인)는 아키비스트가 제공하고, 꼬리(개별 수요는 작지만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접근점)는 사회적 태깅, 주석 등을 통해 이용자의 힘을 빌리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위키피디아 방식의 개방형 콘텐츠 집필의 유용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TNA의 Your Archives의 활동성과를 주시하면서<sup>50)</sup>, 이용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자가 기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검색도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 편익이고,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이용자가 검색도구와 기록을 사용하도록 하며, 분야별 이용자 집단을 확인하는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새로운 검색도구의 등장이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높아지는 개발 비용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다. 국가기록원의 주제서비스를 위한 주제집필에 소요된 비용이 수억 원에

---

49) 전통적 시장에서는 잘 팔리는 상위 종목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 파레토 법칙에 의해 80:20의 집중현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발생확률 혹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새로운 물류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 부분도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롱테일(Long Tail)이라고 한다.

50) 2007년 이미 1,330명의 등록자와 99,095 방문 수, 479개 기사에서의 이용자 상호작용 효과를 얻어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자료: Selman, Ruth. Your Archives, 2007. 이현정, “이용자의 기록서비스 참여 기반 조성 과 향후 과제”(2008, 미발표논문)에서 재인용.

달하는 등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고 개발하는 것뿐 만 아니라 기존 개발한 내용을 현행화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결국 해결책은 이용자 집단에서 찾아야 한다.

## 5. 맺음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기업의 경영 환경을 ‘레고 월드’에 비유하였다. 끊임없이 조립되고, 해체되는 레고 조각들처럼 오늘날 기업의 성과는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는 능력 그리고 지식을 고객과 통합하고 연결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규정하였다.<sup>51)</sup>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기록관리제도 마찬가지로의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록과 정보라는 레고 조각들을 끊임없이 조립하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서 기록정보콘텐츠라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전적인 환경에 서 있는 것이다. ‘증거’로서의 기록의 효용성과 가치는 유지해야 하지만, 지식정보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키비스트는 검색도구의 다양화, 복합화, 통합화의 추세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 4월 ‘나라기록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양한 검색도구를 제공한 결과 하루 평균 약 1만 명가량 방문하고 있는데(2007.4 - 2008. 12 평균), 개설 이전에 4천 명 남짓하던 홈페이지 방문자 수와 비교하면 주제 기반 서비스가 주는 효

51) 엘리자베스 하스 에더샤임, 『피터 드러커, 마지막 통찰』. 서울: 명진출판사, 2007.

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칙을 지켜 기록을 분류·기술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사이버 고객을 위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는 검색도구를 서비스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탈 맥락화 등 새로운 검색도구 출현에 따른 문제점에서도 지적했듯이 견고한 수직형 검색도구 체계의 구축 없이 기록의 지식자원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이는 특히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의 사례에서도 발견하였듯이 기본 검색도구 없는 주제 검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엄격한 수직형 검색도구 개발에만 머무른다면 새로운 고객의 발길을 더 이상 끌어 들일 수 없는 반면, 기본 없이 다양성만 추구할 경우 장기적이고 효율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경향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이용자 참여이다. 이용자의 집단적 참여는 검색도구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높이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 방법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자가 검색도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방법이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 기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색도구 개발 전략은 더 나아가 특정 주제나 지역, 사건에 대한 ‘기록화 전략’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용자가 애써 검색(search)하지 않아도 발견(find)되도록 하라”는 것이 웹 2.0의 정신이며, 이는 이용자의 집단지성을 신뢰하고 활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sup>52)</sup> 기록 검색분야에서도 이러한

---

52) Morbille, Peter, 『검색2.0 : 발견의 진화(Ambient Findability)』. YUNA 옮김. 서울: 한빛미디어, 2006.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용자, 아키비스트, 기록이 ‘검색도구’라는 구조 안에서 활발히 소통하는 ‘검색도구 2.0’의 구현은 기록정보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20세기 말에 서양의 아키비스트들이 “출처의 재발견”을 외쳤듯이<sup>53)</sup> 이제는 우리가 “이용자의 재발견”을 외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끝)

---

53) Nesmith, Tom, ed. 『Canadian Archival Studies and the Rediscovery of Provenance』 . Scarecrow Press, 1993.

## ABSTRACT

# **A Study on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Archival Finding Aids**

Seol, Moon-Won

Finding aids are tools which facilitate to locate and understand archives and records. Traditionally there are two types of archival finding aids: vertical and horizontal. Vertical finding aids such as inventories have multi-level descriptions based on provenance, while horizontal ones such as catalogs and index are tools to guide to the vertical finding aids based on the subject.

In the web environment, traditional finding aids are evolving into more dynamic forms. Respecting the principles of provenance and original order, vertical finding aids are changing to multi-entity structures with development of ISAD(G), ISAAR(CPF) and ISDF as standards for describing each entity. However, vertical finding aids can be too difficult, complicated, and boring for many users, who are accustomed to the easy and exciting searching tools in the internet world. Complementing them, new types of finding aids are appearing to provide easy, interesting, and extensive access channel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and limitation of vertical finding aids, and the recent trend of evolving new finding aids complementing the vertical ones. The study finds three new trends of finding aid development. They are (i) mixture, (ii) integration, and (iii) openness. In recent days, certain finding aids are mixed with stories and others provide integrated searches for



the collections of various heritage institutions. There are cases for experimenting user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finding aids using Web 2.0 applications. These new types of finding aids can also cause some problems such as decontextualised description and prejudices, especially in the case of mixed finding aids and quality control of user contributed annotations and commen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resent paper suggests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 of vertical finding aids and to connect them with various new ones and to facilitate interactions with users of finding aids. It is hoped that the present paper will provide impetus for archives including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o set up and evaluate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archival finding aids.

**Key words:** finding aid, description, vertical finding aid, provenance-based finding aid, subject based finding aid, integrated search, Web 2.0

